

우리의 생활권을 보전해준 나무

부족장이 동쪽을 다스리던 제정일치시대의 마을은 신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우주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 마을의 중심과 경계를 모두 나무가 상징하였다. 그 후 사람이 점점 늘면서 여러 마을이 합쳐진 더 큰 영역은 고을이 되었고, 이런 고을들이 통합되어 국가를 형성하였다. 신의 뜻을 전달받는 우주의 중심은 왕이 있는 곳에 한정되고 나머지 고을은 지방이 되었다. 이런 과정은 우리말의 어원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마을이나 고을이 모두 신이 다스리던 영역으로 어원이 같고, 부족장을 뜻하던 '검, 감, 금'에서 국가의 임금이란 이름도 나왔다고 한다.

신이 내려오는 자리로 남다

이후에는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고, 지방의 고을은 신이 아니라 왕의 뜻을 집행하는 인간이 관리하게 되었다. 이런 관리체계가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온 나라의 생활공간이 도(都), 읍(邑), 촌(村), 즉 서울, 고을, 마을이라는 3층 구조로 짜였다. 고을의 중세어형은 '을'로 역사시대의 읍, 군, 현, 주, 부, 관(官)을 두루 의미했다고 한다.

원래 우주의 중심으로 신이 다스리던 영역을 뜻하던 고을과 마을은 그 의미를 잃고 인간인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나무는 여전히 토속 신앙에서는 우주의 중심, 즉 신이 내려오는 자리로 남아있다. 지금도 여러 마을에 남아 있는 당산목이 그것인데, 이들을 신성시하는 전통은 나무를 꼼짝하게 위하는 관습을 낳아서 심지어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बे지 못해 마을숲으로 보전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런 숲은 마을 안과 밖을 나누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타향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마을숲이 보이면 '이제 고향에 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도 했을 것이다.

전통시대에 가장 밀착된 생활권은 이와 같이 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숲과 산 넘어 다른 동네로

가는 고개로 둘러싸인 영역으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말하는 동네가 이것이다. 동(洞)네라는 말도 같은 물을 먹는 사이란 뜻으로 친밀감이 더 커졌을 것이고, 고개가 분수계(分水界)가 되어 다른 동네와는 유역이 달라지고, 이 물이 나가는 마을의 입구(水口)에 마을숲이 조성되어 마을 공간을 달아준다. 이런 마을숲은 대동단결의 울타리 역할도 하여 조선시대에 와서는 토속신앙을 배척하던 유학자들까지 나서서 마을숲을 만들고 길이 보전하여 마을의 기상을 지키고 남에게 자랑하기도 하였다.

힘든 시대에도 나무는 지켜냈다

산을 넘어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고개에도 큰 나무가 있었다. 서낭나무가 그것인데, 그 나무 밑에는 돌을 쌓아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며, 타지로 나갈 때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타지에서 묻은 사악한 기운을 떨치고 마음을 경건하게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런 다짐은 마을 입구에 있는 숲에서도 마찬가지였을 터인데, 이곳에 있는 나무를 신성시하는 관습은 옛날 그 어려울 때 일반 산에 있는 나무는 다 베어 쓰고 나중에는 뿌리까지 캐내어 쓸 때에도 마을숲은 보전하도록 만들었다. 일제강점기와 현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나게 훼손되었지만 2011년 현재 1천346개의 전통마을숲이 남아있다는 이를 보전하려는 욕구도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마을숲의 역사를 알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무하러 고개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고개 안에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나무가 없어 뿌리를 캐다 때웠기 때문에 아궁이에 흙이 쌓여 그것을 치우는 것도 일이었다고 증언한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고개를 넘으면서도 덩그러니 자라고 있는 서낭나무나 마을 입구의 커다란 숲은 손도



글 신준환

국립수목원장
kecology@forest.go.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장, 산림보전부장 등을 지냈다.



대지 않았다.

이런 거목들은 타향으로 여행할 때 이정표 역할도 하였다. 울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던 커다란 굴참나무는 여행객들이 강원도로 여행할 때, 이 나무를 기준으로 각 고을로 들어가는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런 나무들은 육지의 등대였을 것이다. 노정(路程)도 가능했겠지만, 이들이 멀리서라도 보이면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길을 만들 때에도 일정 간격마다 나무를 심어 길손들이 휴식도 하고 거리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고 한다. 오리나무, 시무(스무)나무가 다 거리를 나타내고, 히어리도 거리를 나타내는 전라도 방언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참살이의 기반 되는 생태계 서비스 창출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이용해 생활권을 보전하고 그 의미를 강화시킨 역사의 전통은 깊다. 신라가 천년을 간 것은 나무를 잘 심었기 때문인데, 힘을 덜 들이고도 환경재해를 막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왕에게 아뢴 것이 조선실록에 나온다. 처음에는 숲을 신성하게 생각하여 보전하였으나 사람의 생활에도 그 효용이 많은 것을 본 우리 조상들은 점점 더 많은 숲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고려를 지나 조선시대에 오면 지방에 관리를 보낼 때에도 숲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전남 담양에 가면 관방제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방제림이란 관에서 홍수를 막기 위해 독을 조성하고 숲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민간 영역에서도 향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숲을 조성하며 마을 환경을 보전하였고, 이 숲이 울창해지면 그 마을의 기상을 기리며 청송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마을숲의 효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보았다. 경북 의성지역은 골짜기가 북서쪽으로 열려있어 겨울에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의 피해를 많이 받는다. 이런 바람으로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짜기를 가로질러 숲을 조성하였다. 그래서 가로숲이라고 하는데 불이 잘 붙는 초가



▶▶ 전북 완주군 안남 마을숲, 이 숲은 만경강의 침식과 강바람을 막아준다.



▶▶ 경북 의성군 사촌 가로숲, 이 숲은 겨울철의 차고 건조한 북서풍을 막아준다.

와 목조 주택을 이 숲이 지켰다고 한다. 전설 같은 이야기의 과학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지형과 나무의 높이, 숲의 구조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가로숲이 보호해주는 자리에만 집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조상의 지혜에 감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찬 겨울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고마웠던지 친정집에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서애 류성룡의 어머니도 여기서 해산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이다. 지금은 여러 학자들이 마을숲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연구하고 있는데, 방풍, 침식 방지, 경관 조성, 수분 보전, 양분 순환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비닷물에 아침 햇살이 반사하여 눈이 부시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하여 이를 가리기 위해 숲을 조성했다는 경남 고성 의장산숲, 마을 앞의 부용대가 어른들에게는 좋은 경치로 보이지만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1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서 가렸다는 하회마을의 만송정 숲 이야기를 들으면 입이 벌어진다. 우리 조상들은 어른과 아이들의 심리 상태까지 구분하고 생활환경을 창출하였다.

이렇듯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제 왕도 없고, 중앙집권제도 사라졌다. 중앙과 지방을 나누기보다는 서로 조화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고개와 마을 입구, 두 군데 나무를 심어 생활권을 만들던 역사를 보며 문득 중심을 두 개 가진 타원이 생긴다. 대학원 시절 생태학은 중심이 하나인 원이 아니라 중심이 두 개이면서 하나를 이루는 타원의 시각으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후배들과 '타원'이란 공부모임을 가졌다. 마을도 두 중심이 어울리지만, 마을과 국가의 중심도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란 중심과 너란 중심을 세우기보다는 나와 네가 만나면 우리가 된다. '우리'의 어원도 울타리의 '울'과 같아 자신이 속하고 있는 범위로서의 동족을 뜻한다고 한다. 마을을 보전해주던 나무를 보면서 숲이 이 시대의 화두인 '공유 가치 창조'에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